

화순 고인돌군·판소리 '세계유산' 등록

■ '조선왕릉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실... 광주·전남엔 어떻게 있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낙안읍성.

지난 22일부터 스페인 세비야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The World Heritage Committee)는 오는 30일 세계 각국이 신청한 세계유산 30건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조선왕릉군'(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의 세계유산 등록을 신청해둔 상태로 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여론이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 및 자연유산을 등록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유산(문화·자연·복합),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세계기록유산으로 나뉘며 각국은 세계유산으로 등록 받기 위해 나리별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선정, 관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종교·종교 8건의 세계유산과 판소리 등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3건, 훈민정음 등 세계기록유산 6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16건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관리 중이다. <표 참조>

조선왕릉군 등재 신청을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에 본포한 세계문화 유산 등에 대해 알아본다.

광주·전남 세계유산 가운데 주목을 끄는 건 고창·화순·강화고인돌군(고창,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이다. 한국의 고인돌군은 밀집분포도, 형식의 다양성으로 동북아지역의 고인돌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유럽, 중국·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화순 고인돌군은 600기에 달하는 고인돌과 주변에 채석장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사적 제410호로 지정해 관리하다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다.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록된 판소리 역

낙안읍성 잠정목록에 등재 공룡화석 지도 재신청 추진 강진 도요지·순천만 '주목'

시 서면제 등의 발상지인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세계유산이다.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복자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창), 아니리(말), 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구연하는 판소리는 삶의 희로애락을 해학적인 음악으로 표현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3년 등록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옮긴 유산은 순천 낙안읍성(문화유산),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자연유산), 강진 도요지(문화유산) 등 3건이다.

1983년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순천 낙안읍성은 우리나라 읍성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조각과 전통 세시풍물 등이 남아 있어 아시아인의 농경 민속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산이다.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는 당초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이란 이름으로 자연유산 등록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실사를 담당한 세계자연연맹(IUCN)이 '등재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한 까닭에 주제 재신청을 위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해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

하기로 한 것이다.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화순 고인돌군.



세계유산 재신청 예정인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 설악암 불국사(문화-1995) 종묘(문화-1995)
해인사·장경관전(문화-1995) 청계궁(문화-1997)
수원화성(문화-1997) 경주역사유적지구(문화-2000)
고창·회성·강릉 고인돌유적(문화-2000)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자연-2007)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7)

세계기록유산 향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송정월일기(2001)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2007) 조선원조 의궤(2007)

이외에도 한국가사문학의 중심이 된 담양 소쇄원 가사문학관과 영광 백수·염산 협전, 서해안 간벌 지대, 순천만, 천관산 등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한편 세계유산은 모두 878건(145개국)이며, 이는 문화유산 679건, 자연유산 174건, 복합유산 25건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준상·신성우·박건형 등 '초호화 캐스팅'

뮤지컬 '삼총사' 광주 온다

7월 4·5일 문예회관

왕을 지키는 삼총사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테스 그리고 날 타냥이 등장하는 암살극으로 뛰 마의 소설 '삼총사'는 영화와 만화 등으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조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뮤지컬 '삼총사'가 광주 팬들을 찾아온다. 7월 4일(오후 4시·8시), 5일(오후 3시·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삼총사'가 기대를 갖게 하는 건 무엇보다 화려한 캐스팅 때문이다. '삼총사'에는 한 무대에서 만나기 어려운 뮤지컬 스타들이 총출동,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진중한 아토스 역으로 유준상과 신성우가 출연하며 달타냥 역은 박건형이 맡았다. 여기에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의 김법래와 '지킬 앤 하이드'의 민영기가 포르트스와 아라미스 역으로 가세했다. 여주인공 콘스탄틴 역으로는 '오페라의 유령'의 헤로인 김소연이 출연하며 밀라디역은 배해선과 백민정이 더블 캐스팅됐다.

작품의 배경은 17세기 프랑스. 시골 출신으로 총사가 되기 위해 파리로 온 달타냥은 소매치기 당하고 이를 잡으려다 유명한 '삼총사'와 미주친다.

자신을 조종하는 삼총사에게 달타냥은 결투를 신청하고 막 결투를 시작하려고 할 때 파리 최고 권력가 리슬리 초기 경의 근위병들과 싸움이 벌어진다. 삼총사와 달타냥은 힘을 모아 근위병들을 물리친 후 의기투합하는데...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피아노 5중주 정기연주회

2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지난 2007년 결성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피아노 5중주는 피아노의 동수정(순천대 등 출강), 바이올린의 김현철(광주시립교향악단원), 김도연(스쿨피아오케스트라 악장), 첼로의 오승석(광주시립교향악단원), 비올라의 임요섭(서울시립교향악단원)씨로 구성됐다.

한편 세계유산은 모두 878건(145개국)이며, 이는 문화유산 679건, 자연유산 174건, 복합유산 25건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중주 F단조 작품 34'다.

동수정씨는 "모두 개인 연주활동으로 바쁘지만 양상들은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해 매주 한차례씩 모여 연습을 해왔다"며 "피아노 5중주곡이 많지 않아 새로운 작품을 발굴해 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10-4601-3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유산 어떻게 결정되나

잠정목록 등재→현지 조사→이사회 평가→정기총회서 공표

코에 제출해야하는데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등록신청 서류는 매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해야하며 유네스코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해 2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에 파견해 신청한 유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한 까닭에 주제 재신청을 위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해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사문학의 중심이 된 담양 소쇄원 가사문학관과 영광 백수·염산 협전, 서해안 간벌 지대, 순천만, 천관산 등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한편 세계유산은 모두 878건(145개국)이며, 이는 문화유산 679건, 자연유산 174건, 복합유산 25건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계유산 어떻게 결정되나

코에 제출해야는데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등록신청 서류는 매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해야하며 유네스코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해 2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에 파견해 신청한 유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한 까닭에 주제 재신청을 위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해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사문학의 중심이 된 담양 소쇄원 가사문학관과 영광 백수·염산 협전, 서해안 간벌 지대, 순천만, 천관산 등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한편 세계유산은 모두 878건(145개국)이며, 이는 문화유산 679건, 자연유산 174건, 복합유산 25건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계유산 어떻게 결정되나

코에 제출해야는데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등록신청 서류는 매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해야이며 유네스코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해 2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에 파견해 신청한 유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한 까닭에 주제 재신청을 위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해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사문학의 중심이 된 담양 소쇄원 가사문학관과 영광 백수·염산 협전, 서해안 간벌 지대, 순천만, 천관산 등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한편 세계유산은 모두 878건(145개국)이며, 이는 문화유산 679건, 자연유산 174건, 복합유산 25건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계유산 어떻게 결정되나

코에 제출해야는데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등록신청 서류는 매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해야이며 유네스코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해 2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에 파견해 신청한 유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한 까닭에 주제 재신청을 위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해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사문학의 중심이 된 담양 소쇄원 가사문학관과 영광 백수·염산 협전, 서해안 간벌 지대, 순천만, 천관산 등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한편 세계유산은 모두 878건(145개국)이며, 이는 문화유산 679건, 자연유산 174건, 복합유산 25건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계유산 어떻게 결정되나

코에 제출해야는데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등록신청 서류는 매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해야이며 유네스코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해 2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에 파견해 신청한 유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한 까닭에 주제 재신청을 위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해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사문학의 중심이 된 담양 소쇄원 가사문학관과 영광 백수·염산 협전, 서해안 간벌 지대, 순천만, 천관산 등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한편 세계유산은 모두 878건(145개국)이며, 이는 문화유산 679건, 자연유산 174건, 복합유산 25건으로 구성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계유산 어떻게 결정되나

코에 제출해야는데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등록신청 서류는 매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해야이며 유네스코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해 2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에 파견해 신청한 유산에 대한 평가를 한다.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한 까닭에 주제 재신청을 위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해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사문학의 중심이 된 담양 소쇄원 가사문학관과 영광 백수·염산 협전, 서해안 간벌 지대, 순천만, 천관산 등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한편 세계유산은 모두 87